

# 입원 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불안 및 간호요구도\*

유 경 희<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입원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며 아동의 입원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 역할에 혼란이 오거나 가족기능에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된다(Oh, 1997).

입원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어머니가 곁에 있어서 간호에 참여하는 것이 어머니와 환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환아 간호에는 어머니의 참여가 필수적이다(Park, 2003). 특히 환아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아동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는 환아에게 이루어지는 검사 및 처치과정을 통하여 불안, 좌절감, 무기력 등의 정서적 반응을 겪게 된다. 이로써 가족은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보다 큰 상황적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Oh, 1997; Park, 2003).

자녀가 질병을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그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낮은 병원 환경에 대한 불안, 자녀 질병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가 당하는 고통, 가정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된다(Freiberg, 1972). 또한 입원한 아동 어머니의 불안한 정서 반응은 어머니의 대처 능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불안이 아동에게 직접 전달되어 아동의 질병 회복이나 정서 안정 및 성장 발달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Koo, 2002; Oh, 1997;

Wolfer & Visintainer, 1975). 이에 대해 Hymovich(1976)는 부모가 자녀의 질병과 입원의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환아 부모는 자녀의 질병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고, 질병의 과정, 진단, 환아가 받게 되는 치료 및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고 싶어하며,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한 Mishel(1983)은 아동 입원으로 인해 부모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은 아동의 질병이나 입원 사건에 대해 중요성을 정의할 수 없게 하거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으며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는 그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 개념을 병원에 입원한 환아의 어머니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국내 논문들(Kim, 2001; Kim, 2003; Koo, 2002; Min, 1994; Oh, 1997; Park, 2003; Park et al., 2000)의 연구 결과, 환아 어머니나 가족이 경험하는 불확실성 정도는 불확실성 측정도구 점수의 50%이상이었다고 특히 암 환아나 임종을 앞둔 환아의 어머니에게서 불확실성 정도가 더 높았다.

한편 아동 입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된 부모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간호요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간호계획을 수립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간호활동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입원 환아 가족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연구한 결과, 입원 환

주요어 : 불확실성, 불안, 입원 아동, 어머니

\* 2005년도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로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yunghee@sch.ac.kr)

투고일: 2007년 4월 5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1일

아 어머니의 간호요구도가 높았으며 간호요구도의 하부 영역인 직접간호, 시설과 환경 및 상담과 교육 등의 영역에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Kim, 2001; Seo, Kwon, Cho, & Choi, 1999; Seo,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입원한 환자의 질병 회복과, 부모가 자녀의 입원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입원 아동의 부모가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낮추고, 입원 생활에서 부모가 원하는 간호요구도에 부합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변수들을 다룬 연구로는 입원한 아동 가족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을 다룬 연구(Koo, 2002; Park et al., 2000)와 입원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확실성과 간호요구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Kim, 2001) 등 3편이 있어 적은 편이다. 또한 이들의 연구 결과, 입원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불확실성은 불안에 대해 유의한 예측 변수였으며, 입원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간호요구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여, 불확실성과 불안 및 간호요구도간의 상관관계 및 불안에 대한 예측 요인에 관한 일관된 누적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입원으로 인하여 불확실성과 불안을 경험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알아보고 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어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입원 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불안 및 간호요구도를 알아보고 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함으로써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에 기틀을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불확실성, 간호요구도 및 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불확실성, 간호요구도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 관련 특성, 불확실성 및 간호요구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용어정의

### ● 불확실성(Uncertainty)

불확실성은 질병과 관련된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느끼는 지각(Mishel, 1988)으로서, Mishel(1983)이 입원한 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PPUS(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의 도구를 수정하여 총 27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 불안(Anxiety)

불안은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과 관련된 과정으로서(Spielberger, Lushene, & McAdoo, 1977), Kim(1978)이 Spielberger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상태 불안 측정 도구 20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 간호요구도(Nursing needs)

입원 아동 어머니가 아동을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진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며(Seo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입원 아동 어머니의 간호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2001)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40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불안 및 간호요구도 정도를 알아보고 연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일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및 자료수집 절차를 소개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또한 소아과 수간호사로부터 입원한 환자 어머니를 소개받아 일대 일로 면담하여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어머니에 한하여 설문지를 나눠주고 면담하여 설문지의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총 15분 정도 걸렸으며 총 1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Tabachnick과 Fidell(1989)은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표본 크기에 대해 예측 요인 당 표본크기의 수를 1:40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예측 요인이 3개이면 필요한 표본 수가 최소한 120명 이상이며 본 연구 대상자수는 180명이므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 연구 도구

### ● 불확실성(Uncertainty)

소아과에 입원한 환자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 측정은 Mishel(1983)이 개발한 PPUS(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을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환자의 질병 및 입원과 관련하여 부모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을 31문항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며, 애매모호성, 명료성 부족, 정보부족 및 불예측성 등의 4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정 문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총 27문항을 사용하였고, 삭제된 문항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의 하부 영역의 구성 문항 수가 너무 적은 영역이 있어 4개 하부 영역 별로 불확실성을 나누어 보기가 어려워 불확실성을 전체 개념으로 보았다. 각 항목의 점수 범위는 1~4점으로 도구의 점수는 최소 27점에서 최고 10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4$ 였다.

### ● 불안(Anxiety)

Kim(1978)이 Spielberger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상태 불안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상태 불안 측정도구는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으며 도구 점수의 범위는 20~80점이다. Lee(1984)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Go(2004)의 연구에서는 .92, Moon(1989)의 연구에서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 간호요구도(Nursing needs)

입원 아동 어머니의 간호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2001)이 입원한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40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간호요구도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간호사정 영역 11문항, 직접간호 영역 13문항, 상담 및 교육 영역 7문항, 시설, 환경 영역 9문항 등이다. 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입원 아동 어머니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이며 전체 도구의 점수 범위는 40~160점이었다. Kim(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요구

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로 높았으며 각 영역 별 신뢰도는 간호사정 영역이 .92, 직접간호 영역은 .94, 간호교육 영역은 .94, 환경간호 영역은 .90이었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불확실성과 불안 및 간호요구도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연구의 제한점

일개 대학 병원에 입원한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 관련 특성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의 성별 특성은 남아가 65.6%, 여아가 34.4%로 남아가 많았고, 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영아가 가장 많아 38.3%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유아로 30.6%이었으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아동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2.75개월이었다. 입원 환자의 출생 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가장 많아 각각 45.0%이었고, 셋째, 넷째의 순이었으며, 평균 입원기간은 7.64일이었다. 한편 소아과에 입원한 환자의 진단명은 호흡기계 질환이 가장 많아 52.2%였으며 그다음이 소화기계 질환으로 15.6%이며 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비뇨기계 및 내분비계 질환 등의 순서였다.

입원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아 61.7%를 차지하였으며 20대, 40대의 순이었다. 또한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아 52.8%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을 한 경우로 46.6%였다. 가정 경제는 중정도가 가장 많아 72.2%였다<Table 1>.

### 대상자의 불확실성, 간호요구도 및 불안 정도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정도는 108점 만점 중 평균(표준편차)이 52.88(10.25)로 도구 전체 점수의 48.96%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27문항 중 불확실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spitalized children & their mothers

(n=180)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Children	Gender	Male	118(65.6)	
		Female	62(34.4)	
	Order of birth	1st	81(45.0)	
		2nd	81(45.0)	
		3rd	17( 9.4)	
		4th	1( .6)	
	Age(month)	1-12(Infant)	69(38.3)	
		13-36(Toddler)	55(30.6)	
		37-72(Preschooler)	35(19.4)	32.75(36.59)
		73-144(School age)	16( 8.9)	
		145-192(Adolescent)	5( 2.8)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ays)	1-7	122(67.8)	
		8-14	47(26.1)	
15-21		5( 2.8)	7.64(4.84)	
22-28		2( 1.1)		
28-35		4( 2.2)		
Diagnosis	Respiratory	94(52.2)		
	Gastroenteritis	28(15.6)		
	Encephalopathy	18(10.0)		
	Vasculopathy	22(12.2)		
	Uropathy & Endocrinic	18(10.0)		
Past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100(55.6)		
	No	80(44.4)		
Age(years)	21-30	56(31.1)		
	31-40	111(61.7)	32.93(4.50)	
	41-50	13( 7.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 .6)		
	High school	95(52.8)		
	College or above	84(46.6)		
Religion	Yes	107(59.4)		
	No	73(40.6)		
Economic state	Low	7( 3.9)		
	Moderate	130(72.2)		
	High	43(23.9)		
Job	Yes	44(24.4)		
	No	136(75.6)		

<Table 2> Means of uncertainty, anxiety and nursing needs

Variables	No. of Items	Total Mean(SD)	Range	Mean of Item(SD)
Uncertainty	27	52.88(10.25)	31- 84	1.95(0.37)
Anxiety	20	42.85(11.91)	20- 80	2.14(0.59)
Nursing needs	40	130.97(22.59)	42-160	3.27(0.56)
Nursing assessment	11	34.13( 6.99)	11- 44	3.10(0.63)
Nursing practice	13	42.35( 8.51)	13- 52	3.25(0.65)
Nursing education	7	23.56( 4.97)	7- 28	3.36(0.71)
Nursing environment	9	30.91( 5.09)	9- 36	3.43(0.56)

정도가 높은 상위 5개 문항 및 문항평균(표준편차)은 “내 아이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으며, 언제 좋아지거나 나빠질지 나는 안다” 3.00(0.89), “내 아이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갈 지 예측할 수 있다” 2.82(0.95), “내 아이의 질병 상태는 계속 변화하여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 2.80(1.00), “내 아이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며 변하지 않을 것

이다” 2.59(1.02), “나는 아이에 대한 각 치료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 2.57(1.04) 등이었다.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의 간호요구도는 문항 평균(표준편차)이 4점 만점에 3.27(0.56)이었다. 간호요구도의 각 하부영역 별 문항 평균(표준편차)은 시설, 환경 영역의 간호요구도가 3.43(0.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 및 교육 영역 3.36

(0.71), 직접간호 영역 3.25(0.65), 간호사정 영역 3.10(0.63) 등의 순서였다. 또한 간호요구도 중 문항 평균이 높은 상위 5개 문항 및 문항 평균(표준편차)은 직접간호 영역의 “간호사가 능숙하게 주사를 잘 놓아주는 것” 3.63(0.76), 시설, 환경 영역의 “위생적인 병실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 3.62(0.67)과 “환아의 상태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는 것” 3.59(0.73), 직접간호 영역의 “검사를 하는 이유와 결과를 설명해주는 것” 3.56(0.74), 상담, 교육 영역의 “환아의 질병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 3.54(0.71) 등이었다.

입원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 정도는 80점 만점 중 평균(표준편차)이 42.85(11.91)로 도구 전체 점수의 53.56%였다<Table 2>.

### 대상자의 불확실성, 간호요구도 및 불안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불확실성, 간호요구도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은 불안( $r=.624, p<.001$ )과 간호요구도(전체)( $r=.147, p<.05$ ) 및 간호요구도의 하부 영역인 간호사정 영역( $r=.170, p<.05$ )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안과 간호요구도(전체)가 높았으며 간호요구도의 하부 영역 중 간호사정의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또한 입원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은 간호요구도(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262, p<.01$ ), 특히 간호요구도의 하부 영역 중 간호사정( $r=.314, p<.01$ ) 및 직접간호( $r=.280, p<.01$ )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아 관련 특성, 불확실성

### 및 간호요구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입원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환아 관련 특성, 불확실성 및 간호요구도의 4개 하부영역 등의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beta=.596, p<.001$ )과 간호사정의 간호요구도( $\beta=.196, p<.01$ ) 및 입원 아동의 입원기간( $\beta=.131, p<.05$ )이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이들 불확실성과 간호사정의 간호요구도 및 아동의 입원기간은 불안에 대해 각각 38.9%, 4.5% 및 1.7%를 설명하여 불안에 대한 총 설명력은 45.1%였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에서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가 경험한 불확실성 정도는 도구 전체 값의 48.96%를 차지하였으며 이 결과는 국내에서 입원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확실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들 중 Koo(2002)의 연구에서 불확실성 정도가 도구 전체 점수의 57.7%인 결과와 Park 등(2000)의 연구에서 불확실성 정도가 도구 전체 점수의 54.7%, Oh(1997)의 연구에서는 59.25%, Kim(2001)의 연구에서는 58.75%, Kim(2003)의 연구에서는 54%, Park(2003)의 연구에서는 56%, Min(1994)의 연구에서는 재발로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아의 가족에서의 불확실성 정도가 51.7% 등의 불확실성 도구 전체 값의 50% 이상을 차지한 결과들과 비교해볼 때 낮게 나왔다. 이는 Park 등(2000)의 연구에서 입원 환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 정도는 환아 질병 위중도가 클수록 높아졌다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환아들의 67.8%가 호흡기계 감염과 소화기계 장염의 경우로서 급성기 감염 시기가 지나면 열이 내리는 등 증상이 완화되고, 전체 환아의 67.8%에서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Uncertainty	Nursing needs	Nursing needs			
			Nursing assessment	Nursing practice	Nursing education	Nursing environment
Uncertainty		.147*	.170*	.138	.110	.081
Anxiety	.624***	.262**	.314**	.280**	.160*	.107

\* p<.05 \*\* p<.01 \*\*\* p<.0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anxiety

Variables	Cumulated R <sup>2</sup>	Beta	t	p
	.451			
Uncertainty		.596	10.497	.000***
Nursing assessment of nursing needs		.196	3.415	.001**
Duration of hospitalization		.131	2.320	.022*

\* p<.05 \*\* p<.01 \*\*\* p<.001

입원 일수가 7일 이내로 길지 않은 점 등이 관련된다고 생각되나 반복 연구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입원 환자 어머니의 불안 정도는 도구 전체 값의 53.5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Bae(2000)가 입원 아동 어머니의 상태 불안을 측정된 결과 불안 도구 전체 값의 58.5%를 차지한 결과와 Koo(2002)가 급성기 질환으로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의 불안이 전체 도구 값의 59.9%를 차지한 결과들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Park 등(2000)이 소아과 입원한 암 환자 및 일반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각각 불안 도구 전체 값의 66.6%와 62.3%를 차지하여 본 연구의 불안 정도와 비교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퇴원 2-3일 전에 자료수집을 하였는데 비하여 Park 등(2000)의 연구는 입원 3일째에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환자의 주관적 질병 위중도가 높고, 병원에의 입원 횟수가 많아 어머니의 불안 정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그 외 본 연구와 다른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을 측정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Lee(1984)는 일반 내외과에 입원한 환자의 불안 정도가 도구 전체의 57.5%라고 하였으며, Cho(2000)는 유방절제술 환자의 불안이 도구 전체의 57.4%라고 한 결과 및 Go(2004)의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불안이 도구 전체의 62.1%를 차지한 결과들에 비해 불안 정도가 낮았으며, Wong과 Bramwell(1992)이 유방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1-2일전에 측정한 불안 정도가 전체 도구의 48.11%를 차지한 결과에 비해서는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비교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대상자들의 질병 특성이나 불안 측정 시기 등에 따라서 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입원 아동 어머니들의 간호요구도(전체)와 하부 영역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Seo(2002)가 입원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문항 평균이 3.32로 나왔으며 시설, 환경과 상담 및 교육 영역의 요구도가 각각 3.38, 3.35 등으로 나오고 간호사정 영역이 3.14로 가장 낮게 나온 결과와 비슷하였고, Kim(2001)의 입원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요구도 평균이 3.37, 상담과 교육 영역 문항 평균이 3.36, 시설과 환경 영역이 3.33 등으로 나온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Seo(2002)의 연구에서 간호요구도 상위 5개 문항 중 “위생적인 병실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 “검사를 하는 이유와 결과를 설명해주는 것” “환아의 질병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 등의 3개 문항이 일치하였고, Kim(2003)의 연구에서 입원 환자 어머니는 환아의 질병 및 진단적 검사에 관하여 교육받기를 가장 원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된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능숙하게 주사를 잘 놓아주는 것”, “환아의 상태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는 것(질병에 따른 분류)”의 문항 평균이 상위 5위 이내로 높게 나온 결과는 Kim(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입원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은 불안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Koo(2002)의 연구에서 입원 아동 가족이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556, p=.000$ )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다른 연구 대상자에서 불확실성과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Lee(1984)는 일반 내외과 환자들이 질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았다고 하였고( $r=.4924, p<.001$ ), Cho(2000)는 유방절제술 환자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r=.80, p<.0001$ ), Go(2004)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은 유의한 상관관계( $r=.503, p=.000$ )를 보였다고 하여 입원 환자나 환자 가족 및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입원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은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Kim(2001)의 입원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확실성과 간호요구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Lee(2005)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확실성과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결과들과 상반된다. 이는 앞으로 다양한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입원 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간호사정의 간호요구도 및 아동의 입원기간은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총 설명력이 45.1%였고 불확실성 단독으로는 불안에 대하여 38.9%의 설명력을 가졌는데, 이는 Park 등(2000)이 소아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안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불확실성이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p<.01$ ), 설명력이 25.8%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Lee(1984)는 일반 내외과 환자들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총 설명력이 49.4%였는데 5가지 유의한 변수들은 대응양상, 질환에 대한 불확실성, 입원 종류, 성별, 학력 등이 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앞으로 입원한 환자나 가족들이 경험하는 불안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입원 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불안을 낮추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입원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과 불확실성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귀분석 결과 입원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에 대한 중요 예측 인자가 불확실성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ishel(1983)이 아동 입원으로 인하여 부모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은 부모가 입원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

에 입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입원한 환자 또는 가족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전략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불안 및 간호요구도 등의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입원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설문지의 응답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일대 일 면담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총 1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는 불확실성(Uncertainty), 불안(Anxiety), 간호요구도(Nursing needs) 등을 측정하였으며 이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sim .97$ 이었다.

자료수집과정은 일개 대학병원에서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지를 주었으며, 설문지에의 응답시간은 15분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및 기술적인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정도는 108점 만점 중 평균(표준편차)이 52.88(10.25)로 도구 만점의 48.96%였다. 또한 입원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 정도는 80점 만점 중 평균(표준편차) 42.85(11.91)로 도구 만점의 53.56%였다.

입원 아동 어머니의 간호요구도는 문항 평균(표준편차)은 3.27(0.56)이었으며 간호요구도의 각 하부 영역 별 문항 평균(표준편차)은 시설, 환경 영역의 간호요구도가 3.43(0.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 및 교육 영역 3.36(0.71), 직접간호 영역 3.25(0.65), 간호사정 영역 3.10(0.63) 등의 순서였다. 입원 아동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은 불안( $r=.624, p<.001$ )과 간호요구도( $r=.147, p<.05$ ) 및 간호요구도의 하부 영역인 간호사정 영역( $r=.170, p<.05$ )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입원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beta=.607, p<.001$ )과 간호사정의 간호요구도( $\beta=.153, p<.01$ ) 및 아동의 입원기간( $\beta=.134, p<.05$ )이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이들 불확실성과 간호사정의 간호요구도 및 아동의 입원기간은 불안에 대해 각각 38.9%, 4.5% 및 1.7%를 설명하여 불안에 대한 총 설명력은 45.1%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소아과에 입원한 어머니에게 자녀의 질병과 입원 생활에 대해 어머니가 요구하는 간호요구도에 부합하는 간호 정보를 제공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의 입원 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 입원으로 인한 가족이나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병동 소아과에 입원한 급성기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향후 입원기간이 긴 만성질환이나 혹은 질병의 위중도가 높은 암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 및 간호요구도를 연구하여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Bae, J. J. (2000). *Effect of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state anxiety and belief on parental role of mother with in-patient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 Cho, O. H. (2000). Uncertainty, anxiety and coping with mastectomy for breast cancer. *J Korean Acad Nurs*, 30(4), 1006-1017.
- Freiberg, K. H. (1972). How parents react when their child is hospitalized. *Am J Nurs*, 72(7), 1270-1272.
- Go, A. R. (2004). *The relations of meaning in life, uncertainty and anxiety in patient with chronic renal fail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Pusan.
- Hymovich, D. P. (1976). Parents of sick children: Their need and task. *Pediatr Nurs*, 2(5), 9-13.
- Kim, E. J. (2003). *A study on the uncertainty, educational needs of mothers and the degree of nurse's educational performances perceived by mothers whose children was in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 Kim, J. T. (1978).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xiety and social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O. (2001). *A study on mother's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nursing need concerning child's hospit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 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Koo, H. Y. (2002). Uncertainty and anxiety in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Korean J Child Health Nurs*, 8(1), 67-76.
- Lee, I. H. (1984). *A correlation study for the degree of the uncertainty in illness and the coping style with state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M. S. (2005). *A study on uncertainty and nursing need of cancer patients according to the phases of il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Daegu.
- Min, Y. S. (1994). A correlational study on uncertainty and coping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J Korean Acad Nurs*, 24(4), 529-544.
- Mishel, M. H. (1983). 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concerning their hospitalized child. *Nurs Res*, 32(6), 327-328.
- Mishel, M. H. (1988). Uncertainty in illness. *Image J Nurs Sch*, 20, 225-232.
- Moon, Y. S. (1989). *A study on emotional anxiety of mothers who have hospitalized il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Oh, J. A. (1997). *A study on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coping effort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I. S. (2003).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sease-related uncertainties in the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and their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Park, K., Kam, S., Hah, J. O., Park, K. S., Kang, Y. S., & Kim, S. W. (2000). Uncertainty, stress and anxiety of mothers about disease of child.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4(2), 219-231.
- Seo, J. Y. (2002). Nursing need and satisfaction of families with their hospitalized children. *Korean J Child Health Nurs*, 8(2), 195-203.
- Seo, Y. M., Kwon, I. S., Cho, M. O., & Choi, W. J. (1999). Nursing needs of parents with hospitalized child. *Korean J Child Health Nurs*, 5(1), 59-69.
- Spielberger, C. D., Lushene, R. E., & McAadoo, W. G. (1977). *Theory and measurement of anxiety states*.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c Co.
- Tabachnick, B. G., & Fidell, I.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 Collins.
- Wolfer, J. A., & Visintainer, M. A. (1975). Pediatric surgical patients' and parents' stress responses and adjustment as a function of psychologic preparation and stress-point nursing care. *Nurs Res*, 24(4), 244-255.
- Wong, C. A., & Bramwell, L. (1992). Uncertainty and anxiety after mastectomy for breast cancer. *Cancer Nurs*, 15(5), 363-371.

## A Study on Uncertainty, Anxiety and Nursing Needs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Yoo, Kyung-Hee<sup>1)</sup>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uncertainty, anxiety and nursing needs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Method:** Self 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the variables. Variables were uncertainty, anxiety and nursing needs. In data analysis, SPSSWIN 12.0 program was utili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Cronbach's alphas of .84 to .97 indicat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s. Uncertaint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xiety ( $r=.624$ ,  $p<.001$ ) and nursing needs ( $r=.147$ ,  $p<.05$ ), and anxiety positively correlated with nursing needs ( $r=.262$ ,  $p<.01$ ). In regression analysis of anxiety, uncertainty, nursing assessment of nursing needs and duration of hospitaliz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explaining 45.1% of variance. **Conclusion:** Uncertaint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anxiety in mothers whose children were hospitalized.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s which decrease uncertainty must be developed for these mothers.

**Key words :** Uncertainty, Anxiety, Children, Hospitalized, Mother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Kyung-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366-1, Ssangyoung-Dong, Cheonan 330-090, Korea  
Tel: 82-41-570-2496 Fax: 82-41-575-9347 E-mail: kyunghee@sch.ac.kr*